粵劇 <情僧偷到瀟湘館> 연구*

– 공연콘텐츠 속 寶玉 캐릭터의 변개에 대하여

이 지 은**

<목 차>

1. 서론
2. 주요 장면에 나타난 寶玉 캐릭터의 변개
2.1 黛玉과 만남 장면
2.2 寶釵의 방문 장면
2.3 黛玉과 葬花 장면
2.4 寶釵와 혼인 장면
2.5 黛玉의 제사 장면
3. 결론

1. 서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공연무대에는 한정된 인원만이 등장할 수 있다. 소설은 아무리 방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지만, 공연콘텐츠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공연콘텐츠는 한정된 등장인물을 십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전달하고 캐릭터를 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작 속의 원 캐릭터는 공연콘텐츠 속에서 변개되기 마련이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0834)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yang-guifei@daum.net)

본 논문은 ≪紅樓夢≫의 주인공 寶玉이라는 원 캐릭터가 紅樓戱라는 공연콘텐츠 안에서 어떠한 양식으로 변개되는지를 알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상작품은 粵劇 <情僧偷到瀟湘館>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紅樓戱가 생산되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연되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기원은 1940년 呂玉郎·楚岫雲 주연의 粵劇 <偷祭瀟湘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馮志芬[1]이 <情僧偷到瀟湘館>으로 개편하였고, 非凡響劇團의 何非凡[2]과 楚岫雲이 연기하여 廣東省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작품은 1950년대까지 널리 유행하였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홍콩에서 1956년 6월 6일 상영되기도 하였다.[3] 작품의 흥행은 다른 粵劇團에도 영향을 주었고, 雲浮市粵劇團 등의 극단에서도 연출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볼 작품은 廣東粵劇院一團에서 연출한 <情僧偷到瀟湘館>으로, 동명의 작품 중 가장 최근 상연된 작품이다. 陳冠卿이 編劇을 맡았으며, 丁凡과 蔣文端이 주연을 맡았다.[4] 廣東省의 粵劇 劇場과 TV 희곡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며, 각종 동영상 플랫폼에서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상연시간은 약 2시간 40분이다.

---

1) 廣州에서 교사로 역임하던 馮志芬은 粵劇界에 입문하여 覺先聲, 錦添花, 非凡響 등의 월극단에서 編劇을 맡았다.

2) 何非凡은 1938년 非凡響粵劇團을 조직하여, 名旦인 楚岫雲과 鳳凰女, 丑生인 小覺天 등을 초빙하여 함께 무대에 올랐다. 초기에는 베트남에서 공연을 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上海에 와서 <西廂記>를 상연하면서 관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홍콩으로 돌아가 공연을 하면서 공전의 호황을 누렸다. 그가 楚岫雲과 함께 공연한 <情僧偷到瀟湘館>는 廣州에서 연속 1년 여 동안 300회에 걸쳐 상연되어, 粵劇 공연 최고 판매기록을 갱신했다. 建國 초에, 何非凡은 홍콩에서 名旦 紅線女、芳艷芬 등과 <情僧偷到瀟湘館>, <白蛇記>, <一曲鳳求凰> 등의 작품을 연기하였는데, 특히 <情僧偷到瀟湘館>은 연속 106회에 걸쳐 연출되었으며 공전의 판매기록을 세웠다.

3) 編劇은 李願聞이 맡았으며, 감독은 秦劍, 연기는 何非凡(1919-1980, 보옥 역), 鄭碧影(대옥 역), 馬笑英, 白龍珠 등이 맡았다.

4) 이 외에 邱小娜(薛寶釵), 張俊英(賈母), 葉蓓(王熙鳳), 梁曉瑩(紫鵑), 陳錦雲(王夫人), 李嘉宜(襲人), 郭敏嫻(晴雯), 黃征(傻大姐), 陳小嫻(雪雁), 鍾銀英(周媽媽), 黃敏敏(蓉兒), 周嘉珍(鴛鴦), 祝燕彩(珍珠) 등이 출연했다.

2. 주요장면에 나타난 寶玉 캐릭터의 변개

작품은 총 7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제목은 제1장 <黛玉進府>, 제2장 <夜訪怡紅>, 제3장 <葬花盟心>, 제4장 <傻露驚變>, 제5장 <黛玉焚稿>, 제6장 <寶玉鬧婚>, 제7장 <偷祭瀟湘>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寶玉이 黛玉을 만나 첫눈에 호감을 느끼지만(제1장), 寶釵의 출현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나자(제2장), 보옥은 대옥에게 진심을 고백하고 사랑을 맹세한다(제3장), 그러나 집안 식구들의 음모로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제4장), 대옥은 세상을 떠나고(제5장), 보옥은 혼인을 거부한 채(제6장), 출가승의 몸으로 瀟湘館을 찾아와 대옥의 제사를 지낸다(제7장)는 내용이다.

작품의 내용이 보옥과 대옥의 만남-사랑-죽음-출가로 축약됨에 따라, 등장인물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주요 등장인물은 寶玉, 黛玉, 寶釵, 賈母, 王熙鳳, 紫鵑, 王夫人, 襲人, 晴雯, 傻大姐, 雪雁, 周媽媽, 鴛鴦 등 12 명이며, 그 외에 無名의 하녀들과 선녀들이 등장한다. 원작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한 명이 여러 역을 담당하거나 캐릭터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원작에서 보옥은 대옥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여 대옥을 고독과 번뇌에 빠트리는 意淫의 캐릭터로 형상화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옥의 캐릭터가 공연콘텐츠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옥의 심리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특히 주요 장면을 원작과 비교함으로써 원 캐릭터에 일어난 실제 변개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7장 가운데 보옥이 등장하는 대목은 제1·2·3·6·7장 등 총5장으로, 보옥의 형상화가 두드러지는 장면을 위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www.kci.go.kr

2.1 黛玉과 만남 장면

제1장 <黛玉進府>는 대옥과 보옥의 첫 만남 장면을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은 黛玉, 雪雁, 紫鵑, 大夫人, 王夫人, 王熙鳳, 寶玉, 시녀들이다. 대옥이 榮國府에 입성하여, 대부인의 거실 대청에서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 보옥이 등장한다. 대부인은 보옥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한다.

원작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서사하고 있다.

> 〔원작〕 보옥은 벌써부터 자매가 한 사람 늘어난 것을 보고 임씨네 고모의 딸인 것으로 짐작하곤 얼른 나서서 허리 숙여 읍을 하였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돌아와 앉아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남들과는 각별하게 달랐다. 그 모습을 詞로 노래하면 이러했다. 찡그린 듯 아닌 듯 푸른 연기 걸린 듯 굽은 두 눈썹, 기뻐하는 듯 아닌 듯 정을 담뿍 머금은 두 눈빛, 슬픔 어린 두 뺨에서 우아한 자태가 피어나고, 나약한 병든 몸에서 아리따운 풍류가 흐른다. (중략) 보옥이 바라보고 나서 문득 말했다. "이 누이동생은 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5] (≪홍루몽≫ 제3회)

이 대목은 보옥이 대옥과 인사를 나눈 후 대옥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서사한 것이다. 보옥은 대옥의 모습을 관찰한 후, 대옥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이 장면은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변개되었다.

> 〔작품〕
> 보옥 : (대옥에게) 고모님의 딸이 분명하군요! (인사하며) 누이, 반가워요!
> 대옥 : (보옥에게 인사하며) 오라버니, 만나서 반가워요.
> (보옥과 대옥이 서로를 바라보며, 빙글빙글 무대 위를 돈다)
> 시녀들 : (唱) 갑작스러운 만남 꿈처럼 즐겁나니, 乍相逢驚似夢,
> 예전 어느 곳에서 만났던가. 何方曾聚首.
> 보옥 : 하나는 구름 속에 나타난 선녀, 一個是仙姬雲裏現,
> 눈썹에 얼마나 많은 수심 숨겼는지. 眉斂幾分愁.
> 대옥 : 하나는 갠 하늘에 걸려 있는 낭월, 一個是朗月掛晴空,

5) 조설근・고악 지음, 최용철・고민희 옮김, ≪紅樓夢≫ 제1권 p.90.

바람을 맞고 우뚝 솟은 玉樹로구나. 玉樹臨風秀.
시녀들 : 틀림없이 전생의 인연이, 莫非是前生一段緣,
금생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로다. 今生重鑄就.
은근한 정을 담아 눈길을 보내며, 情脈脈再凝眸,
다시 눈길을 보내누나. 再凝眸.
보옥 : (가모에게) 누이를 일찍이 본 적이 있어요. 這個妹妹我早已見過.[6] (제1장 <黛玉進府>)

원작에서 보옥이 대옥의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은 보옥이 대옥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유심히 살펴보는 동작으로 변개되었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대 위를 도는 동안, 시녀들의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갑작스러운 만남 꿈처럼 즐겁나니, 예전 어느 곳에서 만났던가." 이 唱詞는 보옥과 대옥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첫 만남에서 느끼는 반갑고도 행복한 심정이 시녀들의 입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시녀들은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 "전생의 인연, 금생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네."라고 정의한다. 이 唱詞는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주고 있다. 시녀들은 주인들의 수종을 드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원작에서의 話者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원작에서 밝히지 않았던 주인공의 심리와 인연의 내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독자들이 원작을 읽을 때 행간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와 내원에 대해 추측했다면, 작품에서는 노래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녀들의 노래는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각별한 것인지, 보옥과 대옥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한 보옥이 대옥에게 얼마나 반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唱詞로 인해, "할머님, 누이를 일찍이 본 적이 있어요."라는 보옥의 대사는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원작에서 알 수 없었던 첫 만남 당시 보옥의 심정과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 관객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이어서 보옥은 대옥의 이름을 물어본다.

www.kci.go.kr

6) 작품의 인용문은 공연실황을 채록하여 옮겼다. 창사에 대해서는 원문을 첨가하고, 지문과 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문을 첨가하지 않았다.

〔원작〕 "누이는 이름이 뭐지?" "임대옥이에요." "호는?" "호 같은 건 없어요.""그럼 내가 좋은 호를 하나 지어 줄까? '顰顰'이라고 하면 어때! 아주 그럴듯하지?"[7] (≪홍루몽≫ 제3회)

보옥은 대옥의 이름을 물어보고, 대옥에게 顰顰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이 장면은 월극에서 다음과 같이 변개되었다.

〔작품〕
보옥 : 누이, 누이는 이름이 뭐지?
대옥 : 대옥이에요.
보옥 : 호는 있겠지?
대옥 : 없어요.
보옥 : 누이, 내가 호를 하나 지어 줄까?
대옥 : 좋아요.
왕부인 : (자리에서 일어나) 또 시작이냐. 너는 글공부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필 여기서 글재주를 부리고 있느냐?
보옥 : 어머니, 어머니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唱) 經典은 읽을 마음 없지만, 經典無心讀,
詩詞의 字句는 탐구하기 즐기지요. 愛把詩詞字句求.
顰顰이라는 두 글자 佳人에게 드리나니, 顰顰兩字贈佳人,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未知此名合意否. (제1장 <黛玉進府>)

원작에서처럼 보옥은 대옥의 이름을 묻고, 顰顰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작에 없는 대목이 등장한다. 왕부인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함부로 글 솜씨를 자랑하냐."고 핀잔을 주는 대사가 첨부된 것이다. 이는 원작의 바로 앞 장면에서 왕부인이 대옥에게 보옥의 단점을 지적하며 조심시키는 대목을 끌어온 것이다. 왕부인의 대사는 평소 보옥의 행실을 알려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옥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옥은 왕부인의 지적에 "경전은 읽을 마음 없지만, 詩詞의 字句는 탐구하기 즐기지요."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평소 성향을 밝히고 있다.

www.kci.go.kr

7) 상게서, 제1권 p.90.

이어서 보옥은 대옥에게 "顰顰이라는 두 글자 佳人에게 드리나니,"라는 말로 대옥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대옥이 얼굴만 아름다운 美人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부합되는 佳人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대옥을 향한 보옥의 호감이 다시금 표현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도 보옥의 심리는 대사가 아닌 唱詞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대사를 통해서는 원작의 주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원작에서 밝히지 않았던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서는 唱詞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에서 밝히지 않은 보옥의 내면과 심리를 더욱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대옥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옥의 캐릭터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2.2 寶釵의 방문 장면

제2장 <夜訪怡紅>의 등장인물은 寶釵, 晴雯, 襲人, 寶玉, 黛玉이다. 원작에서 怡紅院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엮은 것으로, 보차가 怡紅院을 방문하여 보옥의 잠꼬대를 듣는 대목(제36회)과 晴雯이 이홍원을 찾아온 대옥을 문전박대하는 대목(제26회)을 결합한 것이다.

원작에서 보옥은 성정이 너무나 유정한 나머지, 모든 자매와 시녀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보옥은 보차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시녀 습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기도 한다. 원작이 지어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옥의 태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 독자와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옥의 캐릭터는 대옥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인물로 정제되며, 이러한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방해가 되는 주변 인물들은 누락되거나 배제된다. 원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매들이 작품에서 애당초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녀 중에도 습인과 청문 및 설안이 등장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보옥에게 상당한 호감을 보인 습인 역시 자신의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www.kci.go.kr

않고, 보차 한 사람만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로서 부각되고 있다.

원작에서 보차는 아름답고 단아하며 품위가 있는 여성으로 형상화되며, 주변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보옥 역시 보차를 흠모하는데, 원작 제28회에서는 보차의 아름다운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보옥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한다.[8] 그러나 해당 작품은 보옥과 대옥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차의 비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훼방자로서의 부정적인 캐릭터가 강해진다.

제2회 <夜訪怡紅>에서 보옥의 병문안을 위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원작 제36회에서 작중화자는 보차의 이홍원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원작〕 보차는 대옥한테 藕香榭에나 함께 가서 거닐어 보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대옥은 곧 목욕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둘은 그대로 헤어졌다. 보차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걷다가 지나는 김에 이홍원에 들렀다. 보옥과 잠시 얘기나 나누며 한낮의 졸음이나 쫓아볼 심산이었다.[9] (≪홍루몽≫ 제36회)

작중화자는 보차가 이홍원을 방문한 목적이 단순히 이야기를 하며 졸음을 쫓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이 변개되었다.

> 〔작품〕
> 보차 : (唱) 蘅蕪의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蘅蕪心事誰知曉,
> 金鎖는 말없이 자기연민에 빠졌네. 金鎖無言只自憐.
> 失玉의 풍파 조금 안정되었지만, 失玉風波雖稍定,
> 놀란 마음 진정시킬 길 없네. 而我難定驚魂.
> 몸은 閨房에 있어도 마음은 怡紅에 있어, 人在幽閨心系怡紅,
> 때를 봐서 위문하러 왔다네. 還得借機來慰問. (제2회 <夜訪怡紅>)

---

8) 돌연 금옥의 일이 생각났다. 문득 보차의 모습을 바라보니 은쟁반같은 얼굴에 물먹은 살구 같은 눈빛, 연지를 바르지 않아도 붉은 입술, 먹으로 그리지 않아도 검푸른 눈썹이 대옥과는 또 다른 풍만한 아름다움과 풍류 넘치는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보옥은 자신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상게서 2권 p.215)

9) 상게서, 제2권 p.372.

보차의 노래 가운데 "蘅蕪의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라는 唱詞에서 마음속에 남모를 심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은 怡紅에 있어."라는 唱詞에서 보옥을 향한 보차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홍원에 도착한 보차는 "금석의 인연이 아니라 목석의 인연의 따르리라"는 보옥의 잠꼬대를 듣게 된다. 원작에서 습인이 외출을 하고 보차 혼자 보옥의 잠꼬대를 듣는 것과는 달리, 작품에서는 보차와 습인이 함께 듣게 된다. 이를 계기로 보차와 습인은 사이에는 유대감이 생겨나고, 습인은 보차와 보옥의 결합을 돕고자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보옥이 깨어나자, 습인은 적극적인 태도로 보옥을 인도하여 보차와 인사를 나누게 한다.

〔작품〕 (습인이 보옥을 보차에게 인도한다)
보옥 : (인사하며) 누이께서 왕림하셨는데, 영접을 못하였구려.
보차 : 평안하였는지요? 누이로서 오랫동안 적조하였소.
보옥 : 많이 좋아졌지요.
(唱) 바보 같은 옥에게 우울증이 침범하여, 濁玉橫來愁病侵,
하루 종일 정신이 혼미하여, 鎭日神思昏昏,
누이에게 수고를 끼쳤거늘, 有勞寶姐姐,
늘 마음에 두고, 經常掛在心,
아침저녁 위문하러 오다니. 旦夕來慰問. (중략)
보차 : 속히 玉體를 일으켜, 亦望你早復元玉軀稍振,
白髮의 어르신들 안심시키소서. 安慰白髮年邁人.
보옥 : 그때 다시 시모임에 가서, 那時又再去詩社,
붓을 잡고 마음을 노래하며 詩壇에서 활약합시다. 握管咏志馳騁詞林.
보차 : 雪梅를 읊는 일 올바른 학문 아니니, 吟雪咏梅原非正學問,
聖賢을 본받고 五經을 익혀야 하지요. 師先聖賢習五經,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수양하여, 正心修身,
德을 세우고, 바른 말을 남기고, 벼슬길에 올라야죠. 立德, 立言, 立品
보옥 : 나는 아둔한 인간에 불과하여, 寶玉無非是個濁人,
부끄럽게도 녹을 좀먹는 벌레에 가깝소. 恥和祿蠹相親近.
堯舜임금께 몸 바치기에는 더욱이 무능하여, 致君于堯舜更無能,
더러운 玉 우매하여 聖訓을 그르칠 것이오. 濁玉碓愚蒙有違聖訓.
(보옥이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난다) (제2장 <夜訪怡紅>)

보옥의 인사말은 겸양과 예의로 가득하지만, 사랑이나 애틋함은 찾아볼 수 없다. 보옥과 인사를 마친 보차는 이내 보옥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시작한다. 내용은 집안 어른들을 안심시키고,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이 대목은 원작 제36회의 보차의 怡紅院 방문 장면에는 없는 내용으로, 제32회의 내용을 劇化한 것으로 추정된다.10)

보옥은 학문에 전념하기보다 詩詞를 즐기는 인물이다. 보옥에게 있어 詩詞란 것은 經典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經典이 정통적인 학문, 입신출세양명을 위한 도구, 가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詩詞는 보옥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자 사랑하는 여인 대옥이 좋아하는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으로, 자유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시 짓기는 그의 취미일 뿐 아니라, 숨 막히는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그의 영혼에 한줄기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차는 이런 경로를 차단하고, 과거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한다. 보옥은 지금 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보차의 관심은 보옥의 입신양명에 있다. 보옥을 병들게 하는 것은 '石으로서의 숙명과 玉으로 살아야하는 사명'과의 괴리에서 오는 압박감이다. 그러나 보차는 이런 개인의 애호나 심신의 건강은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차의 태도는 보옥의 반감을 일으키고, 보옥은 "누이에게 원래 이런 고견이 있으심을 문득 깨치게 되었소."라는 말로 응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차가 계속해서 공부의 중요성을 설파하자, 보옥은 자신의 무능함을 설파하고, 공명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피력한 후, 보차에게 등을 돌린다. 보옥에게 보차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음과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唱詞와 행동으로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제2장 <夜訪怡紅>은 보차가 이홍원을 방문하는 대목과 대옥이 이홍원을 방문하는 대목을 하나의 장면 안에 연출함으로써, 세 사람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차를 거절하는 보옥의 단호한 태도를 통해,

10) 제32회에서 湘雲이 보옥에게 공부를 하라고 채근하자, 이에 습인은 "보차 아가씨도 아가씨와 같은 말을 했었는데 도련님은 남의 체면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휑하니 나가 버렸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장면을 각색한 것이다.

www.kci.go.kr

원 캐릭터에 내재되어 있던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경감시켰다.

2.3 黛玉과 葬花 장면

제3장 <葬花盟心>의 등장인물은 보옥과 대옥으로, 원작의 제27회와 제28회의 葬花 대목을 극화한 것이다. 葬花 대목은 애절하고도 아름다워서, 수많은 紅樓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눈대목으로 자리 잡았다. 대옥이 꽃장례를 지내면서 葬花吟을 읊으면, 그 소리를 듣고 보옥이 인생무상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보옥을 발견한 대옥이 이홍원에서 문전박대 당한 사건을 떠올리며 보옥을 피하려 하자, 보옥은 한숨을 지으며 "오늘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 줄을 알았다면 애초부터 사귀지도 않았을 것을!"이라며 탄식한다. 이에 대옥이 "애초부터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보옥은 지금까지 의좋게 지내왔던 일과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하며 "누이도 나의 이런 고독한 마음을 알아줄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연한 일이었어."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는다.

원작에서 보옥이 대옥을 위로하자, 마음이 풀린 대옥은 어젯밤 일에 대해 물어본다.

> 〔원작〕 그 말을 듣고 대옥은 어젯밤의 서운했던 마음이 어느새 구만리 밖으로 달아나서 다짜고짜 다그쳐 물었다. "그럼 왜 내가 갔을 때 대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보옥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정말 그랬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아침부터 멀쩡한 사람이 죽느니 사느니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고,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공연히 맹세까지 할 건 뭐 있어요."[11] (≪홍루몽≫ 제28회)

대옥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보옥의 소행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사실이

www.kci.go.kr

11) 상게서, 제2권 p.189.

아님을 깨닫고 비로소 의심을 풀고 웃으며 미소 짓는다.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이 변개되었다.

〔작품〕
보옥 : 내 배를 갈라 내 심장을 보여주어, 我願剖腹示心,
나의 붉은 진심 알려주리니, 表赤心,
금과 옥이 무엇이랴. 什麽玉與金.
나는 저런 삿된 이야기 믿지 않으니, 我不信這邪論,
누이도 수심에 잠겨 예민하지 마오. 妹莫多愁善感.
대옥 : 오라버니도 날 화나게 하지 말고, 哥你莫惹人,
보옥 : 누이도 근심으로 찡그리지 마오. 妹你莫愁顰.
나의 진심 보여주십사 하늘에 맹세하나니, 可誓向蒼天表我赤沈,
천지가 닳아도 금석의 맹세 깨트리지 못하리라. 地老天荒不毁木石盟.
누이여, 안심, 안심하길. 妹呀, 你放心, 可放心. (제3장 <葬花盟心>)

원작이 전날 밤 대옥이 문전박대당한 사건의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다면, 작품은 보옥의 진심에 대한 대옥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오해를 푸는 것으로 확대되어있다. 보옥은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金玉의 인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옥을 위로한다.

〔작품〕
보옥 : 누이, 누이는 마음을 놓지 못해서 병이 걸린 거야. 누이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병도 좋아질 거라고.
(대옥이 보옥의 손을 뿌리친다.)
보옥 : 누이, 만약 누이가 못 믿는다면, 내가 …… 내가 죽어서 보여줄 거야!
(대옥이 깜짝 놀라 보옥의 입을 막는다.)
대옥 : 또 죽는다니요, 그 말 얼마나 들었는지. 난 아마 오래 살지 못해서, 오라버니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보옥 : 누이가 죽으면, (합장하며) 나는 중이 될 거야. (제3장 <葬花盟心>)

보옥은 대옥의 건강을 걱정하며 부디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충고한다.[12] 이

12) 이 대사는 원작 제32회에서 보옥이 대옥에게 한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누이는

www.kci.go.kr

어서 보옥은 만약 대옥이 자신의 진심을 못 믿겠다면, 죽어서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이라는 대옥의 말에, 보옥은 대옥이 죽으면 중이 되겠노라 맹세한다. 여기에서 보옥의 출가라는 복선이 드러나고 있다.

보옥이 중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원작에서 두 번 등장한다.

〔원작〕 대옥은 눈물을 그치고 말을 받았다. "오빠가 날 달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나도 감히 오빠를 가까이 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내가 가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나도 따라가지 뭐." "난 그럼 죽어버릴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는 중이 되고 말테야."[13](≪홍루몽≫ 제30회)

〔원작〕 습인이 말했다. "대옥 아가씨, 아가씨는 제 마음의 고통을 모르세요. 차라리 단숨에 목숨이 끊어져 죽었으면 좋겠어요."

습인의 말에 대옥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습인 언니가 죽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먼저 울다가 죽어버리고 말거야."

그러자 보옥이 얼른 뒤를 이어 말했다. "네가 죽으면 난 중이 되고 말테야."[14](≪홍루몽≫ 제31회)

첫 번째 예문은 보옥이 대옥을 달래는 대목이고, 두 번째 예문은 보옥이 습인을 달래는 대목이다. 보옥은 대옥에게 "네가 죽으면 나는 중이 되고 말테야."라고 다짐하고, 곧이어 습인에게도 "네가 죽으면 난 중이 되고 말테야."라고 다짐한다. 이 하나의 예만 놓고 보더라도, 원작의 보옥은 맹세를 남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옥은 다른 여인에게는 어떠한 맹세도 하지 않고, 대옥 하나만을 위해 맹세하는 인물로 변개되었다. 이러한 변개를 통해 보옥은 專一한 사랑의 캐릭터로 변화되어간다.

작품은 아름다운 葬花 장면에 대옥과 보옥의 맹세를 연결시킴으로써, 아름

그 안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몸에 병을 얻게 된 거야. 조금만 마음을 더 너그럽게 가졌더라도 지금처럼 병이 하루하루 심해지지는 않았을 거야.(你皆因總是不放心的原故, 才弄了一身病. 但凡寬慰些, 這病也不得一日重似一日.)" (≪홍루몽≫ 제32회)

13) 상게서, 제2권 p.247.

14) 상게서, 제2권 p.270.

다운 배경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사랑과 대옥의 죽음과 보옥의 출가라는 복선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원작의 여기저기에 산재된 대옥을 향한 보옥의 맹세를 한데 엮어 두 사람의 사랑을 심도 있게 표현하고, 보옥의 캐릭터를 순수하고도 지고지순한 사랑의 인물로 승화시켰다.

2.4 寶釵와 혼인 장면

제6장 <寶玉鬧婚>은 보옥의 혼인 장면에 해당하며, 등장인물은 寶玉, 寶釵, 雪雁, 大夫人, 王夫人, 王熙鳳, 시녀들이다.

원작에서 보옥은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례에 참여하게 된다. 보옥은 신부가 보차임을 알아차리고 절망에 빠진다.

> 〔원작〕 희봉이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다. "보차 아가씨가 안방에 앉아 있으니 그런 소릴랑 그만둬요. 보차 아가씨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할머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더니 보옥은 정신이 더욱 혼미해졌다. 워낙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데다가 오늘 밤 이런 신출귀몰한 장난에 휘말리고 보니 제정신일 리가 만무했다. (중략) 온 방에 安息香을 피워 보옥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자리에 눕혔다. 모두들 숨소리를 죽이고 있으려니 얼마 후 보옥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15] (≪홍루몽≫ 제97회)

보옥은 신부가 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다. 그러나, 정신이 혼미한 보옥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피운 안식향을 맡고 이내 잠에 빠지고 만다. 그 후 보옥은 한동안 슬픔에 빠져 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곧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 〔원작〕 또 한편으로는 대옥이 이미 고인이 된 바에는 보차가 제일가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金石의 인연'이 운명처럼 믿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마음

15) 상게서, 제5권 p.416.

도 한층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16] (≪홍루몽≫ 제98회)

보옥은 결국 '금과 옥의 인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보차를 운명의 여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처럼 원작 속의 보옥은 우유부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작품 제6장 <寶玉鬧婚>의 혼인식 장면에는 보차 곁에 등을 돌리고 있는 雪雁이 등장한다. 보옥은 설안을 보고 대옥과 성혼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한다. 보옥이 신부의 얼굴을 덮은 덮개를 벗겨 얼굴을 확인한 후, 보차와 결혼하게 된 이유를 큰소리로 외쳐 묻는다.

〔작품〕
보옥 : 어째서? 어째서?
왕희봉 : 보차 아씨는 품성과 미모를 겸비했고, 집안이 좋은데다 재산도 많으니, 寶玉과 金鎖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좋은 인연이라고요.
보옥 : (唱) 봉황의 짝이 웬 말인가, 什麽鳳配鸞交,
비둘기가 까치둥지 점거한 꼴이로다. 分明鵲巢鳩占.
(가모에게) 할머니 鴛鴦譜 잘못 선택하고, 老朝宗你點錯鴛鴦譜,
(보차에게) 보채누이 鳳求鸞 잘못 연주하여, 寶姐姐你彈錯鳳求鸞.
무정한 풍악소리 瀟湘館에 울려 퍼지니, 無情管樂到瀟湘,
대옥누이 병은 더 깊어지고, 你一定病更加深.
혼이 나갔겠지. 魂欲斷. (중략)
(꿇어앉아 가모에게 절하며) 할머니, 老朝宗,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望發慈悲念慈悲念,
병체화가 원한을 품지 않게 해주소서. 休令並蒂情花長抱怨,
다만 두 개의 病根은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但願兩個病根一個源,
살아남아 오래도록 만나다가, 活着願能長相見,
죽어서 손잡고 황천 가게 해주소서. 死後攜手赴黃泉. (제6장 <寶玉鬧婚>)

신부가 보차라는 사실을 안 보옥은 이유를 따져 묻는다. 왕희봉은 '결혼을

16) 상게서, 제5권 p.428.

www.kci.go.kr

주도한 것은 대부인의 뜻'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보차의 "집안이 좋은데다 자산도 많다"는 이유로 이 결혼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보옥은 혼인을 주도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대부인을 향해 대옥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절규하는 보옥의 모습은 애절하여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원작속의 보옥은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혼례를 치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작품 속의 보옥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심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보옥은 이 혼인을 '비둘기가 까치둥지를 점령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보차를, '까치둥지'는 자신과 대옥의 신방을 의미한다. 보옥은 결혼을 주도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절망의 순간에도 보옥은 자기 자신이 아닌 대옥을 걱정한다. 혼례 연주를 듣고 애간장이 타고 있을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옥이기 때문이다.

원작의 혼례 장면에는 보옥의 심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보옥의 病態를 삭감하고, 보옥으로 하여금 마음속의 울분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대사와 唱詞를 안배하였다. 이를 통해 보옥은 혼인의 자유와 사랑의 권리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캐릭터로 변화되었다. 관객들 역시 원작에서 알 수 없던 보옥의 심리를 확인함으로써, 보옥의 분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2.5 黛玉의 제사 장면

작품의 결말부인 제7장 <偷祭瀟湘>은 원작에 대한 대대적인 변개가 이루어진 대목이다. 등장인물은 寶玉, 紫鵑, 黛玉, 선녀들이다. 원작의 결말은 대옥의 죽음과 보옥의 출가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비극적인 결말은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제고시켰지만, 독자들에게 큰 여운과 아쉬움을 남겼다. 戲曲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방문하는 관객들은 시각적, 청각적 자극과 함께 정서적

www.kci.go.kr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고, 오락적 재미와 심리적 위로를 얻고자 한다. 이런 바람은 작품에 영향을 주어, 결말부의 큰 변개를 이끌어냈다.

제7장은 대옥이 죽은 후에 보옥이 瀟湘館을 찾아가는 장면(제98회)과 보옥이 다시 소상관을 방문하는 장면(제108회)을 하나로 결합하여, 새로운 창작을 가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작 제98회에서 보옥은 대옥의 부고를 듣고, 哭을 하러 소상관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원작〕 보옥은 비록 병세가 하루하루 좋아지고는 있었으나 대옥에 대한 그리움만은 좀처럼 풀 방법이 없었으므로, 한사코 자기가 직접 조문 가서 곡을 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다. (중략) 대옥의 방에 들어선 보옥은 지난날 자기가 앓기 전에 늘 이곳을 드나들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런데 지금 이 방의 주인은 죽고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만 참지 못하고 목 놓아 통곡하는 것이었다. (중략) 보옥은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몹시 슬프게 울어내고 있었다. 보옥은 꼭 자견을 만나서 대옥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17] (≪홍루몽≫ 제98회)

보옥은 소상관에 가서 대옥을 그리며 통곡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옥은 대성통곡을 할 뿐, 대옥에 대한 추모사는 한 마디도 남기지 못한다. 이는 시녀 晴雯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절절한 추모사를 남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옥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옥의 죽음과 부재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보옥이 심정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어서 제108회에서 보옥은 습인과 함께 소상관으로 갔다가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보옥은 자세히 들어보려고 앞으로 나가지만, 사람들이 보옥의 앞을 가로막는다.

〔원작〕 "서방님, 어서 돌아가세요. (중략) 대옥 아가씨가 세상을 뜬 뒤로는 여기서 늘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옥과 습인은 그 말을 듣고 둘 다 깜짝 놀랐다. "역시 그랬구나!" 보옥은 그렇

www.kci.go.kr

17) 상게서, 제5권 pp.435-436.

게 말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대옥 누이! 대옥 누이! 정말 미안해. 멀쩡하던 누이를 내가 죽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날 원망하지는 마. 부모님께서 그러신 거지 내가 배반한 건 절대 아니야." 보옥은 말을 하면 할수록 설움이 북받쳐서 끝내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했다.[18] (≪홍루몽≫ 제108회)

다시 소상관을 방문한 보옥은 대옥에게 사과하며 통곡한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짧은 사과와 변명에 불과하다. 이때에도 보옥은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습인이 보옥을 만류하기 때문에, 대옥을 애도할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제7장에서 다음과 같이 변개되었다. 보옥은 袈裟를 입고 등장하여, 지금까지 겪었던 일과 소회를 토로한다.

〔작품〕
보옥 : 짧았던 인연 서러워라, 恨緣慳,
瀟湘에서의 인연은, 瀟湘姻緣,
희봉 누이에 의해 뒤집혔네. 被鳳姐推翻.
이간질을 당하는 바람에, 遭離間,
나도 입을 열기 어려웠고, 누이도 그랬겠지. 我難開口你亦難, (중략)
蘅蕪院에 비록 보차 누이 있으나, 蘅蕪院雖有個寶釵姐姐,
나와 그녀의 정이란 얼음과 숯과 같았다네. 我都與她情同冰炭.
누이도 알고 있겠지만, 妹妹你可知道,
이 오라비는 음모와 모략을 당했다네. 你寶哥哥受盡了詭計神奸.
누이는 離恨天宮에서, 妹妹你在離恨天宮,
깨죽을 많이 먹어두시게나. 也要吃多口胡麻飯.
내가 西天에서 成佛하고 나면, 待等我在西天成佛,
그때는 그대를 볼 수 있지 않겠나. 那時就不見妹啊,
여윈 몸으로 산들산들 오는 것을. 你瘦骨珊珊. (제7장 <偸祭瀟湘>)

보옥의 唱詞에는 그간의 경험과 심정이 농축되어 있다. 왕희봉의 이간질과 모략으로 인해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현실, 얼음과 숯처럼 섞이지 못한 혼인

www.kci.go.kr

18) 상게서, 제6권 p.188.

생활, 사후에 離恨天宮에서 대옥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절절이 녹아 있다. 여기서 離恨天은 원작의 제1회와 제5회에서 나오는 곳으로, 보옥과 대옥이 전생에 기거했던 곳이다. 離恨이란 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두 주인공의 원형이 살았던 공간이자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이상향이기도 하다. 보옥은 그곳에서 다시 대옥과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소상관에 도착한 보옥은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견을 발견하고, 자견과 인사를 나눈 후 무릎을 꿇고 향을 바치고 대옥을 추념한다. 이는 원작에서 보옥이 청문에게 대옥의 임종 당시의 모습을 묻는 것을 개작한 것이다. 원작 속에 짧은 대목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작품〕
보옥 : (唱) 비단 가사로도 천 겹 원한 누를 수 없고, 錦袈裟壓不住千重恨,
불경으로도 사랑하는 누이의 혼 불러올 수 없네. 金梵經招不回愛妹魂.
삼천 번뇌 깎아낼수록 번뇌 더욱 깊어지고, 煩惱三千削去煩更甚,
선방 곳곳마다 눈물자국 어른어른. 禪房處處有啼痕.
(위패를 끌어안고) (중략)
꽃은 피고지고 날이 갈수록 藏花人 그리워, 花開花落日倍憶藏花人.
사랑의 씨 깊이 뿌려 고행승으로 살기 힘드니, 深種下情根難當苦行僧,
여래보살 가르침이 어찌 귀에 들어오리. 佛訓怎聽得進如來佛訓.
경문 필사할 때마다 붓은 천금만금이고, 每抄經文筆重千鈞,
나도 모르게 그리운 마음 솟아나니, 不由人思相起,
비단 같은 마음 고운 입으로 향기 뿜으며, 妹妹錦心繡口吐芳芬,
복사꽃 시모임에서 시문을 이야기하던 모습. 桃花結社論詩文.
(일어서서 위패를 제단에 놓는다) (제7장 <偷祭瀟湘>)

보옥의 추모사에는 보옥의 내면과 대옥을 향한 진심이 드러나 있다. 종교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불가에 입적했지만 수도승으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보옥은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을 쏟으며 제단 앞에 엎어지고, 어느새 그의 앞에는 선계의 장면이 펼쳐진다. 무대에는 소상관의 무대장치가 치워지고 선

www.kci.go.kr

계의 무대장치가 마련된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선녀 무리 가운데 대옥의 모습이 보이자, 보옥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선녀들을 헤치고 대옥에게 다가간다. 대옥과 조우한 보옥은 가슴속 깊이 품어둔 심정을 토로한다.

〔작품〕
보옥 : (唱) 은하수 길 있어도 다리 놓기 힘들었고, 星河有路橋難架,
지난 일 생각하니 눈물 마구 쏟아지네. 回首前塵淚如麻.
누이 향한 나의 마음 거짓이 아니어서, 我對妹妹情非詐,
옛 맹세 지키고자 가사를 입었다네. 經踐前盟着袈裟.
부디 나를 버리지 말고, 休棄哥,
한 쌍의 불문의 병체화 되자꾸나. 做對佛門並蒂花.
대옥 : 木石의 맹세 헛말이 되었나 했더니, 心盟木石成虛話,
고맙게도 정이 깊어 화려한 속세 버리셨네. 感哥情重棄繁華.
靈河岸 가에서 오실 날 기다리며, 靈河岸邊迎君駕,
灌愁海 위에 뗏목을 띄우리라. 灌愁海上泛仙槎.
선녀들 : 灌愁海 위에 뗏목을 띄우리라. 灌愁海上泛仙槎
보옥 : 대옥 누이! 林妹妹!
(선녀들이 떠난다. 보옥이 인사한다.) (제7장 <偸祭瀟湘>)

대옥을 만난 보옥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회를 마음껏 토해낸다. 보옥은 사랑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중이 되었노라 고백하고, 대옥과 함께 佛門의 並蒂花가 되자고 제안한다. 대옥은 보옥의 마음을 확인하고, 맹세를 지킨 보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후, 나중에 灌愁海에서 재회하자고 약속한다.

원작에는 출가 후 보옥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은 궁금증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옥이 출가 후에도 홀로 대옥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離恨天'과 '灌愁海'에서 다시 재회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灌愁海는 離恨天과 마찬가지로 원작의 제1회와 제5회에 등장하는 지명이다.[19] 灌愁海는 '愁心을 씻는 바다'[20]라는 의미로, 보옥과 대옥의

19) 작품의 화자는 보옥과 대옥을 전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서방의 靈河岸에 三生石이라는 바위가 있고 그 옆에 降珠草라는 풀이 한 포기 자라고 있었는데,

www.kci.go.kr

전생인 神瑛侍子와 降珠草가 살던 곳이자, 사랑의 여신 驚幻仙女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수심도 근심도 이별도 없는 선계에서 다시 만나 신선의 몸으로 평생 사랑하며 살자고 약속하고 있다.

작품은 대옥이 죽지 않고 보옥과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된다는 무리한 변개를 가하지도 않았고, 대옥과 보옥이 천상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취하지도 않았다. 대옥은 죽고 보옥은 승려가 된다는 원작의 큰 흐름을 계승하면서, 사랑의 맹세를 지킨 보옥이 대옥과 재회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원작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옥을 순수한 사랑의 캐릭터로 개조한 결과이다. 이로써 사랑의 맹세를 지킨 보옥에 대한 작은 보상을 줌과 동시에, 관객들에게도 한줄기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 결론

이상으로 ≪紅樓夢≫ 공연콘텐츠 <情僧偷到瀟湘館>에 나타난 寶玉 캐릭터의 변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은 콘텐츠 면에서 보옥과 대옥의 사랑에 관한 일부 내용을 채택하였으며, 보옥이 경험한 悲歡離合의 역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옥의 사랑과 그 캐릭터를 그려내는 데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콘텐츠는 보옥과 대옥의 만남-사랑의 맹세-죽음과 이별-몽환 속에서의 재회로 갈무

마침 赤霞宮에 있던 神瑛侍子가 날마다 이 풀에 이슬을 뿌려서 길렀더랍니다. 그때부터 降珠草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이 풀은 본디 천지의 정기를 타고 난데다가 맑은 이슬로 자랐기 때문에 마침내 풀의 허울을 벗고서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그것도 우락부락한 남자가 아니라 아련하고 어여쁜 여자였는데, 날마다 離恨天 밖에 나가 한가롭게 노닐면서 배가 고프면 密青果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灌愁海의 물을 마시고 살았다지요." (≪홍루몽≫ 제1회, p.33)

20) 灌愁海를 수심을 쏟아 부은 바다라고 해석하는 판본도 있지만, 灌이라는 글자에는 '쏟다, 붓다'는 의미 외에도 '씻다, 닦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씻다'는 의미를 적용하여, 수심을 씻는 바다로 해석하였다.

www.kci.go.kr

리되었다.

본 작품에 보이는 보옥 캐릭터의 변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캐릭터의 설정에 있어서 寶玉을 순수한 癡情의 인물로 재해석하였다. 원작에서 보였던 意淫의 성향과 우유부단한 성격을 제거하고, 대옥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을 위해 맹세하며, 그 맹세를 지켜나가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캐릭터로 변개한 것이다. 이러한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 원작에 보였던 다른 여인들과의 애정사건이 모두 삭제되고, 대옥과 나누었던 사랑의 사건을 위주로 본 작품이 전개되었다. 원작에서 보옥은 대옥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뭇 여인과 염문을 뿌리기도 한다. 작품에서의 보옥은 다른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고, 자신이 했던 사랑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 그 대가로 선계에서 대옥과 다시 만나는 보상을 획득한다. 보옥이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인물로 변개된 것은 일부일처의 현대적 환경에 보옥의 캐릭터를 접목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심리 묘사에 있어서 원작에서 반영하지 않은 보옥의 심리를 충실히 보완하였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을 읽을 때, 독자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행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작품에서는 '唱詞'라는 도구를 통해 원작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보옥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원작에서 보옥의 심리에 대해 의혹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상당량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보옥과 보차의 혼인 장면이다. 원작에서의 보옥은 병증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혼례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품 속의 보옥은 정신이 명징한 상태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왕희봉 일행의 잘못을 지적한다. 관객들은 보옥의 단호한 모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작품은 원작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劇化한 것이 아니라, 보옥과 대옥의 사랑과 영원한 만남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원작을 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옥은 더욱 정련된 사랑의 캐릭터로 변개되었다. 이 변개

된 캐릭터를 통해 관객의 궁금증과 답답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변개된 보옥의 캐릭터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앞으로 다른 紅樓戱와의 비교작업을 통해 寶玉 캐릭터의 변개 양상이 더욱 명료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조설근・고악 지음, 최용철・고민희 옮김, ≪홍루몽≫, 나남, 2009.
子叶, <1947年粵劇<情僧偷到瀟湘館>非凡響粵劇團演出>, 2012[21]
丁凡・蔣文端 주연, 粵劇<情僧偷到瀟湘館>, 廣東粵劇院 연출.[22]

< Abstract >

A Study on Cantonese Opera *The Romantic Monk* — About the Modification of Baoyu Character

Yi, Jieun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characters in the novel, but only a limited number of people can appear on the play stage. Also, novels can contain vast amounts of content, but they must deliver certain content within a set tim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haracters in *Hongloumeng* are reconstructed and reinterpreted in the performance contents. This paper studied Cantonese Opera *The Romantic monk* to see how Baoyu's character is reinterpreted in modern performance content. The features of these

www.kci.go.kr

21) http://www.xijucn.com/html/yue/20120715/38188.html
22) http://youtu.be/k0xMLxXKKc8(등록시간: 2016년)

aspec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terms of contents, a few of narratives related to the love of Baoyu was adopted from the original work. Second, in setting up the character, Baoyu was reinterpreted as the main character of pure love. He was transformed into a man of pure love who loves only one and practices his oath only for one person, eliminating the indecisive character shown in the original book. Third, regarding psychological description, Baoyu's psychology, which was not reflected in the original work, was faithfully supplemented.

Key words: Hongloumeng, Honglouxi, Cantonese opera, Yue Oprea, *The Romantic monk*, Baoyu, characte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0. 31	2020.11. 4 - 11. 25	2020. 12. 1	2020. 12. 7	2020. 12. 31

www.kci.go.kr